

# 4 영국, 새로운 창조 산업 비전 발표

## 1. 영국 정부, 창조 산업을 위한 새로운 비전 발표

### ■ 영국 창조 산업 비전 2030 목표

영국 정부는 2023년 6월 13일 창조 산업 활성화 및 경제 성장을 위해 창조 산업 부문에 대한 새로운 비전(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 이하 창조 산업 비전)을 발표했다. 창조 산업 비전은 성장 촉진, 인재 육성, 기술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공동 계획으로, 문화 부문을 포함한 창조 산업의 성장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 창조산업위원회(Creative Industries Council, 이하 CIC)를 통해 산업계와 함께 개발된 창조 산업 비전은 지금까지의 창조 산업 정책 성과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창조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 영국의 창조 산업 정책 추진 과정

영국의 창조 산업 지원 정책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의 창조 산업 정책 모델에도 영향을 끼쳤다. 일찍이 문화 산업화 및 경제 자원화에 주목해온 영국은 1990년대 말부터 영국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창조 산업의 허브로 만든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2011년에는 CIC가 설립되면서 더욱 다양한 창조 산업 지원 정책들이 등장했다. 2013년 하이엔드 TV 및 애니메이션 도입 지원, 2015년 어린이 TV 세금 감면 등 영향력이 큰 창조 산업 부문에서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다.

**[표 1] 창조 산업 비전  
2030 목표**

자료: GOV.UK  
(2023.6.20.)

구분	내용	
Goal 1	<b>영국 전역으로 창조 클러스터(Creative Cluster)를 확장하고, 500억 파운드의 총부가가치 추가 창출</b> · 2030년까지 영국 전역에서 창조 클러스터 성장을 추진하고 창조 비즈니스 기회 확대	
	2030 혁신 목표	창조 산업 혁신과 관련한 공공 및 민간 투자 확대, 영국 주도의 R&D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
	2030 투자 목표	지역 투자 혁신을 통해 창조 비즈니스의 성장 잠재력 도출
	2030 수출 목표	창조 산업 관련 연간 1조 파운드의 수출을 달성함으로써 영국 경제에 기여
Goal 2	<b>미래를 위해 다방면에서 고도로 숙련된 인재를 양성하고, 영국 전역에서 100만 개 이상의 관련 일자리 지원</b> · 2030년까지 역량 격차와 인재 부족을 해결하면서 창의 인재가 영국 시장 전체의 활력을 이끌고 재능을 구현하도록 보장	
	2030 교육 목표	어릴 때부터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기반과 기회 마련
	2030 역량 목표	보다 탄탄한 역량 확보 및 경력 관리를 통해 업계의 요구를 충족하는 인력 양성
	2030 일자리 질 목표	창조 산업의 모든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격차 없이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노동력과 일자리 보장
Goal 3	<b>창조 산업이 개인, 지역사회, 환경 및 영국의 글로벌 위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극대화</b> · 2030년까지 창조 산업을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영국 전역에서 자국 문화에 자부심을 갖게 하며, 영국의 소프트 파워 <sup>1)</sup> 를 강화	
	2030 웰빙 목표	창의적 활동으로 웰빙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를 강화하며 자부심 고취
	2030 환경 목표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창조 산업의 역할을 확대하여 영국의 에너지 안보 계획 달성 지원
	2030 소프트 파워 목표	창조 산업으로 전 세계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시킴으로써 영국의 소프트 파워 및 글로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 강화

최근에는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s, DCMS)가 제공하는 15억 7,000만 파운드 규모의 '문화 회복 기금(Culture Recovery

1)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조지프 나이(Joseph S. Nye)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한 국가가 보유한 문화나 정치적 가치관, 정책의 매력 등 강제력보다는 매력을 통해 자발적인 지지·이해·공감을 얻는 능력을 일컫음

Fund)’ 등과 같은 강력한 정부 지원을 통해 거의 모든 창조 산업 부문의 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팬데믹을 계기로 영국에서는 넷플릭스나 아마존뿐만 아니라 오디오북 서비스인 오디오블(Audible), 빈티지 및 핸드메이드 제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엣시(Etsy)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크리에이티브 콘텐츠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소비자 행동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증강현실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기술이 창조 비즈니스에 접목되고 있다. 창조 산업 비전은 이러한 변화에 방점을 두고 수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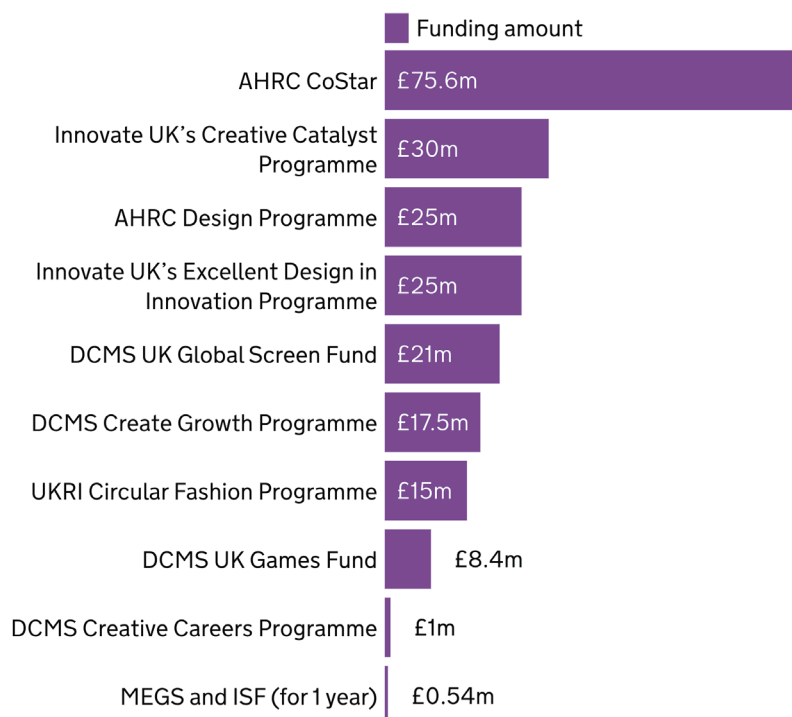
## 2. 창조 산업 비전 2030 주요 내용

### ■ 창조 산업 부문에 7,700만 파운드 추가 지원

영국 정부는 새로운 창조 산업 비전을 통해 2030년까지 영국 전역의 창조 산업 및 창조 클러스터 개발에 7,700만 파운드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러한 자금을 활용하여 상호협력하며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투자는 민간 투자 확대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투자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창조 산업 비전의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투자 계획**

자료: GOV.UK  
(2023.6.20.)



- ▣ '창조 산업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6개의 새로운 지역 창조 산업 클러스터에서 R&D 지원(5,000만 파운드)
- ▣ CoSTAR(Convergent Screen Technologies and Performance in Realtime) 프로그램<sup>2)</sup>의 일환으로 영국 전역에 4개의 새로운 R&D 랩과 인사이트 포어사이트 유닛(Insight Foresight Unit)<sup>3)</sup> 구축(7,560만 파운드)
- ▣ 창조 산업계 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CGP(Create Growth Program) 예산을 1,090만 파운드 증액하여 총 2,840만 파운드의 기금으로 다른 6개 잉글랜드 지역의 기업 지원
- ▣ 독립 자선단체인 로열 애니버서리 트러스트(Royal Anniversary Trust)와 협력하여 창조 산업의 혁신과 성장 장려를 위한 챌린지 출범
- ▣ 기술 혁신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행동강령 개발 가속화

## ■ 창의 역량 및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

영국 정부는 창조 산업 부문에서 전문 인력 양성 및 2030년까지 10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고 있다. 정부는 창의 역량 개발 및 인재의 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창의 역량 확보를 위한 인재 양성 및 교육 관련 주요 시책은 다음과 같다.

- ▣ 2023년 새로운 문화교육계획(Cultural Education Plan, CEP)을 발표, 2,500만 파운드 규모의 악기 계획을 포함한 국가음악교육계획(National Plan for Music Education, NPME) 제공, 포괄적인 어린이 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관련 활동 기회 모색
- ▣ 창조 산업 부문 견습 제도 개선
- ▣ 역량개발 캠프,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창조 산업 역량 개발 지원
- ▣ 굿워크리뷰(Good Work Review)<sup>4)</sup>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와 함께 창조 산업계의 일자리 품질에 대한 액션플랜 개발

2) 영국 연구혁신기구(UKRI) 산하 예술과인문연구위원회(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가 창조 산업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는 영상예술 분야 투자 프로그램

3) 영상 및 공연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 자원, 전문지식을 설계·개발·구축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

4) 창조 산업 전반에 걸친 일자리 품질에 대한 첫 번째 조사 리뷰로, 해당 리뷰는 120개 기관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40개의 개별 지표를 마련하여 공정한 임금, 탄력적 근무, 유급 초과 근무, 직원 대표(employee representation) 등 일자리 품질 관련 문제를 검토

## ■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프트 파워 강화 지원

영국 정부는 창조 산업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영국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관련 업계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과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물론 영국이 소프트 파워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프트 파워와 관련한 주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2023~2025년 런던 패션위크, 2024년 런던 영화제 지원 등을 통해 문화 관련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관련 수출 촉진
- ▣ 영국 정부의 방송 부문 비전을 담은 방송 백서(백서 타이틀 'Up Next') 구현
- ▣ 산업계 주도의 창조 기후헌장(Creative Climate Charter) 도입
- ▣ 브래드퍼드(Bradford) 시(市)가 2025년 영국의 차기 문화도시(UK City of Culture)가 되도록 지원

## 3. 영상 산업에 끼칠 영향

새로운 창조 산업 비전은 영화, TV 등 영상 제작 기술 및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며 관련 업계에 또다른 도약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정부가 약속한 7,700만 파운드의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이 시각효과, 모션캡처, 그리고 영상 산업 및 라이브 공연을 위한 AI 기술에 투자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CoSTAR는 영상 및 공연 부문에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융합·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버킹엄셔(Buckinghamshire)에 소재한 파인우드 스튜디오(Pinewood Studios)에 국립 CoSTAR 연구소를, 요크셔(Yorkshire), 던디(Dundee), 벨파스트(Belfast)에 지역 R&D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국립 CoSTAR 연구소와 3개의 지역 R&D 연구소에는 영화, TV, 라이브 공연을 위한 가상 프로덕션 스테이지 등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영상 제작 공간이 포함될 예정이다. 가상 프로덕션 스테이지는 특수효과가 필요한 촬영에서 하이엔드 LED 패널을 활용한 '가상 세트'를 통해 기존의 블루/그린 스크린 방식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더 효과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특수효과가 필요한 영화 제작 시 배우가 그린 스크린에서 촬영한 후 후반작업을 통해 시각효과와 컴퓨터생성이미지(CGI)를 추가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가상 프로덕션 스테이지는 LED '볼륨' 스테이지를 활용해 그린 스크린 방식보다 더 저렴하게 대규모의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여 복잡한 시각효과를 직접 카메라에 담을 수 있게 해준다. 영국 정부는 런던과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이 시각효과, 모션캡처, 그리고 영상 산업 및 라이브 공연을 위한 AI 기술에 투자될 예정”

같은 대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와 같은 지역에도 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지역 내에 최첨단 영상 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전국에 걸쳐 지역의 영상 산업 부흥을 견인하고, 최첨단 영상 제작 기술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4. 평가 및 전망

영국 정부는 창조 산업을 미래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영국의 창조 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다른 경제 분야보다 1.5배 이상 빠르게 성장했고, 연간 총부가가치(GVA) 1,080억 파운드를 창출하고 있으며, 창조 산업 관련 고용은 2011년 이후 다른 경제 부문 대비 5배가량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올바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추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창조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노동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적 자부심 강화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창조 산업의 성공에 주력해왔으며 창조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를 통해 관련 하위 부문의 투자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성공했다. 2022년 영국의 영화 및 하이엔드 TV 프로그램 제작 지출은 63억 파운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9년보다 18억 파운드 증가한 규모이다. 이 중 54억 파운드는 내부 투자로, 영국의 제작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스튜디오 시설은 영국 전역으로 확장되었다. 예를 들어 2021년 제임스 본드 시리즈로 유명한 파인우드 스튜디오는 약 100만 평방 피트의 제작 공간을 확보한 셰퍼튼 스튜디오(Shepperton Studios)의 확장을 발표했다. 이 공간은 아마존 프라임비디오와 넷플릭스가 장기 계약으로 임대 중이다.

영국은 오랜 창조 산업 지원 정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창조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전 발표로 본격적인 정부의 신규 투자가 시작되며 우선적으로 창조 산업 관계자들의 역량 발휘, 관련 스타트업의 규모 확대, 지역 기업의 세계적 수출 기업으로의 전환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자료

- 이영주, 창조경제정책의 성과와 평가-영국 창조산업정책을 중심으로, Journal of Creative Industry, Vol.1, No.1, pp.1-21, 2014.6.
- 한국콘텐츠진흥원,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전개와 특성, 2013.11.28.
- Arts Council England, New vision for creative industries, 2023.6.15.
- BBC, Belfast to get £75m state-of-the-art movie lab, 2023.6.15.
- Bectu, Bectu responds to the UK Government's new 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 2023.6.14.
- GOV.UK, Ambitious plans to grow the economy and boost creative industries, 2023.6.13.
- GOV.UK, 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 a joint plan to drive growth, build talent and develop skills, 2023.6.20.
- GOV.UK, Levelling Up the United Kingdom: executive summary, 2022.2.2.
- Loughborough University, Loughborough to play key role in new Government unit established to maximise the potential of the UK creative industries, 2023.6.15.
- Policy and Evidence Centre, The Good Work Review, 2023.2.23.
- The Bookseller, Publishers Association welcomes government's plans to boost creative sector by £50bn, 2023.6.14.
- What We Do Now, 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 2023.6.16.